

참관기

- 2001년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학술대회 및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 창립총회 -

홍영선

성모병원 내과 교수

금년 5월 1일 타이완 타이페이 시에서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 (Asia Pacific Hospice Palliative Care Network)의 창립 총회가 열렸다. 필자는 이 창립총회에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의 기획 이사 및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국제이사의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국제 호스피스 학술대회에서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으로 우리 문화에 적합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모델을 만들자고 약속하였고 그 방법의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학술대회를 2-3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하여 그 순서를 홍콩, 타이완, 일본 등으로 정한 바 있었다. 필자는 그 당시 몇몇 한국의 의사 및 간호 대학 교수들과 함께 우연히 참석했다가 한국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조직 위원회에 항의하였고 그 후 한국의 호스피스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할 기회를 얻어 그 자리에서 한국에 자료를 요청하여 정리, 발표 한 바 있었다. 그 이후 참가국 대표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맞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소규모로 하던 중 일본의 Japan foundation의 관계자들이 독자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호스피스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비슷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 참석자들이 앞 선 싱가포르 모임에서의 각국 대표와 일치하여 결국 두 줄기의 모임을 하나로 하자는 결정이 내려지고 1998년에는 아시아태평양 호스피스 학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활동해 왔었다.

창립 회의에서 14개 국가가 founding member로 참여하였고, 그 중 10개 국가에서 당연 직 이사를 선임하고 선출 이사 6명, 추대 이사 4명을 포함한 20명이 council을 구성하였다. 한국에서는 올해 당연 직 이사를 선임하는 해여서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학회의 학술이사인 허대석 교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이사가 되었고 필자가 준비위원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선출 이사 직에 출마하여 1년 임기의 이사로 선임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싱가포르, 홍콩 등과 같이 일찍이 영국의 영향을 받아 호스피스의 국가적 체제를 갖추고 발전시킨 나라들과 호주 뉴질랜드처럼 위치는 태평양지역에 있지만 인종이나 문화 사회체제 경제 수준은 유럽국가의 것을 유지하고 있어 호스피스의 전통이 깊은 나라들 그리고 한국, 타이완, 일본 등과 같이 최근에 이를 받아 들였으나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나라들, 마지막으로 경제적 여건이 아직 충분치 않고 호스피스 완화의료이 이제 막 소개되기 시작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어, 역내의 경제적 조건이 완전치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호스피스의 수준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 또 그러기 위해 소위 선진국들이 어떤 방향으로 공헌 할 수 있느냐가 향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이 학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원국들이 많은 상황여서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등이 많은 비용을 부담해 왔다. 한국도 우선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를 중심으로 미화 10,000 달러를 내기로 약정했고 한

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에서도 120만원을 찬조 한 바 있다. 현재까지는 이 비용의 대부분을 사무국을 움직이는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쓰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향후 이러한 문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꽃씨를 묻으며[허형만]

꽃씨를 묻을 때
 싱싱한 한 줄기 내일을 기다림은
 꽃씨를 묻어 본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고관대작이라도
 이토록 떨리는 손놀림을 모른다.
 작고 단단한 꽃씨,
 꽃씨를 묻으며
 햇살을 기다리고 바람을 기다리고
 빗줄기도 기다리는 가냘픈 소망,
 가을 하늘보다 맑은 마음으로
 흙에 묻혀 흙이 되지 않기를 비는

깊은 기다림의 기도를
 꽃씨를 묻어 본 사람만이 안다.
 어둠 속에 묻혔던
 빗살의 터지는 소리,
 아픔 속에 갇혔던
 뜨거운 눈물 솟구치는 소리,
 아, 싱싱한 한 줄기 꽃바람 소리,
 진정 꽃씨를 묻어 본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
 환히 들을 수 있다.

〈목요시, 실천문학사, 1983〉